

모니터용 LCD 비수기 모른다!

Display Search, 평균가격 2-7% 상승 ... LED 시황도 호조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품 가격이 비수기를 모른 채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특히, 모니터용 제품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Display Search에 따르면, 모니터용 LCD의 1월 평균가격은 26인치 이상 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2-7% 가량 상승했다.

모니터용 LCD 가운데 상승폭이 눈에 띄는 제품은 18인치대로 18.5인치(1366 x 768)는 2009년 12월 평균 69달러에서 2010년 1월 74달러로 7.25% 올랐다.

또 같은 크기의 LED(Light Emitting Diode) 제품은 71달러에서 76달러로, 7.04% 오르는 등 24인치 미만이 상승세를 보였다.

26인치와 27인치는 내렸지만, 평균가격이 각각 144달러, 156달러로 하락폭은 전월대비 2달러 수준에 그쳤다.

수요가 많은 TV용도 대형을 제외하고는 탄탄한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55인치(120Hz) 가격은 2009년 12월 720달러에서 2010년 1월 695달러로 25달러 떨어졌고, 52인치(120Hz)도 700달러에서 690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나 32인치(60Hz)는 200달러에서 204달러로 소폭 올랐다.

노트북용 LCD 가격도 14인치(1366 x 768) LED 모델이 57달러를 기록해 전월대비 1달러 오르는 등 14-15인치대 제품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흐름을 탔다.

시장 관계자는 “모니터용 LCD는 3월이 모니터 제조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2월까지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2>